

| 특 집 |

Free Markets Free Speech Free Choice



2007 한국광고주대회

KAA Annual Conference 2007

국내 광고주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경제의 미래와 국내 광고산업의 발전을 논의하는 2007한국광고주대회'가 10월 18일 오후 2시 조선포털 오키드룸&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박양우 문화관광부 차관,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 이윤호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을 비롯, 국내 주요기업의 광고주를 비롯한 매체사, 광고대행사, 학계, 광고전문가, 정부 인사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Free Markets, Free Speech, Free Choice'를 슬로건으로 개회식, 세미나, 광고주의 밤 등 총 세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먼저 1부 세미나는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한경동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교수,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김상훈 인하대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2부 광고주의 밤'은 광고주들이 한자리에 모여 광고주의 위상 제고와 국가경제 기여도를 함께 생각하고, 국내 광고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올해의 KAA Awards 공로상 부문에서는 김용연 동서식품 회장과 이인호 GIIR 고문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한편 광고주가 뽑은 좋은 모델상에는 CF모델 서단비가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광고주가 뽑은 좋은 프로그램상 연예오락부문에는 KBS 개그콘서트가, 드라마부문에는 MBC 커피프린스1호점이, 그리고 보도교양부문에는 SBS 솔로몬의 선택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인 광고주가 뽑은 좋은 신문기획상에는 동아일보 '최소로 최고를 세계 최강 미니기업을 가다' 시리즈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제1주제_자유시장경제 부문

경제교육, 바로 가고 있는가

한경동_한국외국어대 교수 (박명호 교수 공동연구)

대다수의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나 가정에서 경제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지 못한 채 사회에 진출하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이다. 최근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경제교육지원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고, 경제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수도 다소 늘기는 했지만 아직도 경제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크지 않은 상태이다. 우리의 장기적인 경제성장 및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차세대를 담당할 청소년의 경제교육이 훨씬 강화되어야 한다.

경제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경제학적 지식, 개념을 통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사회참여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경제교육의 목표가 학생들이 개인 혹은 사회에 관한 경제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기 위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경제학의 개념들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경제교육은 경제학의 방법에 집중시켜야 한다. 달리 말하면 의사결정의 형식과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경제교육이 주입식 교육으로서가 아니라 경제개념의 사용과 의사결정을 위한 과정의 사용으로서 제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학교 경제교육과정은 국가가 주도한 사회과 교육과정의 일부분으로 편제되어 있다. 현재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경제교육과정이 적용중이며 2007년 2월에 고시된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2009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새로운 경제교육과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일반계 고등학생들이 듣는 사회과 수업 중에서 경제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6-7% 정도에 이른다. 이런 낮은 관심은 청소년들을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 성장시키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현행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에서 경제과목을 선택할 유인이 매우 낮다는 점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경제관련 전문교사의 부족도 심각한 문제이다. 현재 고등학교에서 경제학을 가

르치는 교사 중 11.5%만이 경제학을 전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밖에서는 경제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경제교육협회에 참여하고 있는 18개 기관 중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재정경제부,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한국소비자원, KDI경제정보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전국은행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JA Korea 등 12개 기관이고,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대한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예금보험공사 등 6개 기관은 경제교육협회 참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한 경제교육의 개선 방안 및 향후 과제를 살펴보면,

첫째, 학교 경제교육의 내실화 방안이다. 대학입시에서 경제학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경

대 지원시 경제과목 이수를 의무화 하는 방안

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교과서 및 보조교재도

실생활과 연계하여 실용적이고 재미있게 만들

어야 한다. 교과서도 급변하는 세계경제환경에

맞도록 시의성 있는 주제를 수시로 업데이트를

해주어야 한다. 이미 과거 사회주의 국가에서

는 모든 이념을 포기하고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사회는 시장경

제를 이념의 관점에서 보려는 경향이 있다. 이

러한 이념의 장벽은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고 할 수 있다. 참신한 경제교육 교

재 개발과 더불어 학교 경제교육에도 다양한

경제전문가 및 CEO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교사 재교육 및 훈련을 확대해야 한다.

우수 교사 공급체계의 개선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교사의 학습능력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교사는 최소한 경제과목을 4강좌 이상 수강할 때 종합적인 강의능력이 배양된다고 한다. 전체적으로 교사들의 층원과 함께 경제담당 교사에 대한 교육연수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경제교육지원법의 제정이다.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임무를 규정하고 경제교육에 대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경제교육지원법을 제정하려 한다. 만일 정부가 시도하는 경제교육지원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지원법에서 추구하는 바를 민간 경제단체가 중심이 되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이와 함께 경제단체의 경제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

